

TV 2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미라의 강한 모성에 웃으면서 눈물 났죠”

송혜교, ‘두근두근 내 인생’ 스크린 복귀

열일곱에 남자친구의 아이를 덜커덕 임신했다. 학생 신분에서 애를 낳는 건 엄두가 안 나는 일. 그녀는 가슴이 터질 듯 내달렸다. 숨을 참고 달리면 애가 떨어질 것이라는 ‘아픈’ 희망을 품고 서다.

그러나 그녀의 의도와는 달리 아이는 태어났다. 생선 들어보지도 못한 선천성 조로증이라는 병과 함께.

세월은 흘러 엄마의 나이는 서른세 살. 16세 아들을 이제 저 세상으로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 하는 나이치고는 너무나 어린 연령이다.

송혜교(32·사진)가 영화 ‘두근두근 내 인생’에서 맡은 미라는 현재의 실수로 평생의 아픔을 견뎌야 하는 젊은 엄마다. 30대에 접어들어 그가 처음으로 엄마 역할을 맡았다.

“20대 때와는 감정 표현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슬프면 마냥 울었는데, 지금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강한 모성을 보여주는 거면 경험도 없고 흥내 내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미라라는 캐릭터가 명랑하고 밝아 다가가기에 크게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현재의 제 나이랑 같고요. 저희 엄마와도 친구처럼 지내는 관계이다 보니 연기하면서 엄마 생각도 많이 났습니다.”

영화 ‘두근두근 내 인생’에 출연한 송혜교의 말이다. 그는 중국영화 ‘일대총사’(2013), ‘태평륜’(2014) 등으로 외유하고 나서 3년 만에 국내 영화계에 복귀했다. 최근 인터뷰에서 “흔한 신화가 아니어서 ‘두근두근 내 인생’을 복귀작으로 선택했다”고 말했다.

“웃으면서 눈물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좋았어요. 심파적으로 ‘울릴 거야’라고 강요하지 않는 부분도 마음에 들었고요. 이재용 감독님의 고급스러운 디테일도 기대했습니다.”

‘두근두근 내 인생’은 스러져가는 청춘의 꿈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죽음을 늘 안고 살아가는 아들, 그리고 그런 어린 아들을 지켜보는 젊은 부부의 이야기다. 김예란의 첫 장편 소설을 바탕으로 ‘정사’(1998)의 이재용 감독이 메가폰을 들었다.

“원작소설을 읽지 않았다”는 그는 “감독님과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가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했다. 또 “그동안 너무 어두운 역할을 많이 해 시나리오를 읽고 밝은 부분에 이끌렸다”고도 했다.

영화에서 송혜교는 남편 대수 역을 맡은 강동원과 함께 교복 패션을 선보인다. 그는 ““그 겨울, 바람이 분다”에서도 교복을 입었다. 항상 장면이어서 매우 짧았다. 그때도 무안했는데, 이 정도는 아니었다”며 “이번 영화에선 어려보일 수 있는 건 다 했다.”



다. 낮 낮지러웠고, 연습하면서 웃었다”고 설명했다.

강동원과는 정중환 감독의 중편 ‘러브 포 세일’(2010) 이후 4년 만에 다시 호흡을 맞췄다. 경남 출신인 강동원으로부터 “사투리 교육”도 받았다. “편하게 잘” 찍었다. 가끔 “덜렁거리려 놓고 가는 부분이 있으면 지지도 아끼지 않은 좋은 파트너였다”고 설명했다.

“상대 배우가 돋보여야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상대 배우를 돋보이게 하자고 생각했고, 마음 편히 연기했어요. 힘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지난 2년간 중국에서 우위선(吳宇森) 감독의 ‘태평륜’과 이닝징(伊寧靜)감독의 ‘나는 여왕이다’를 찍었다. 홍콩 뉴웨이브를 대표했던 왕자웨이(王家衛) 감독의 ‘일대총사’(2013)에도 출연했다.

“이재용 감독님도 예민하고 디테일하지만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감이 잡혀요. 하지만 왕기위 감독님과 이야기를 나누면 혼돈이 올 때가 많았어요. 알듯 모듯 아는 분이 알아서 해줄 거야”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쓰겠다. 나 자신이 너무 실망스럽고, 바보같다”고 강조했다.

송혜교는 최근 불거진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과 관련해서는 거듭 사과했다. 사건이 불거진 이후 소속사 사과를 포함해 세 번째 사과다. 그는 “난 모르니까 아는 분이 알아서 해줄 거야”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쓰겠다. 나 자신이 너무 실망스럽고, 바보같다”고 강조했다.

송혜교는 최근 불거진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과 관련해서는 거듭 사과했다. 사건이 불거진 이후 소속사 사과를 포함해 세 번째 사과다. 그는 “난 모르니까 아는 분이 알아서 해줄 거야”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쓰겠다. 나 자신이 너무 실망스럽고, 바보같다”고 강조했다.

“노래 인생 30년... 감사의 마음 담았죠”

트롯트 여왕 주현미, 내달 13·14일 콘서트



“지금까지 부른 노래 스타일이 아니라 이해하는 분도 계속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냥 ‘대중가요’를 앨범에 담았어요. ‘30년’의 의미가 있으니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소통도 해보고 감사의 마음도 전하고 싶었죠.”

‘트롯트 여왕’ 주현미(사진)가 돌아왔다. 강산이 세 번 바뀐 세월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그는 한 자리에 머무르지 않는 과감한 도전으로 다시 대중의 귀가에 다가갈 준비를 마쳤다.

26일 주현미는 “무엇보다 앨범과 공연에 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았다”고 밝혔다.

그는 “신인 시절 이미지 선배님의 30주년 기념 콘서트에 게스트로 출연했다. 그때는 30년 세월이 정말 까마득했는데 내가 벌써 그 자리에 와있다”면서 “어제도 노래했고 내일도 노래할 것이라서 크게 특별하지는 않다. 답답한 마음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주현미는 1981년 중앙대 약학과에 재학중이던 스무살 MBC ‘강변가요제’에 출전해 장려상을 받았다. 하지만 바로 데뷔하지는 않고 대학 졸업 이후 약사로 일하다 1984년 메탈릭 음반 ‘쌍쌍파티’를 취입하며 본격적인 가수의 길을 걸었다.

정규 1집 수록곡인 ‘비 내리는 영동교’가 크게 인기를 얻으며 스타덤에 오른 그는 이후 ‘신사동 그사람’, ‘짝사랑’, ‘잠깐만’, ‘또 만났네요’ 등 무수한 히트곡을 쏟아내며 국민의 사랑을 받았다.

“저에게 제일 소중한 곡은 아무래도 데뷔곡인 ‘비 내리는 영

EBS

Table with 4 columns listing EBS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EBS플러스1

Table with 2 columns listing EBS Plus 1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EBS플러스2

Table with 2 columns listing EBS Plus 2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27일(음 8월 3일 庚午)

36년생 상대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8년생 간절히 소망한다면 이루어 질 수 있는 길조가 보인다. 60년생 미리 서둘러야한다. 72년생 드라마 때까지 예의 주시하라. 84년생 해안이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58, 10

37년생 마주 대하고 보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 49년생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보자. 61년생 새로운 무식으로 재 조영하게 되리라. 73년생 수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5년생 체계를 세울 때다. 행운의 숫자 : 65, 85

38년생 대상의 선별에 신경 쓰지 않으면 상당한 손실을 야기할 수도 있다. 50년생 원료가 좋아 고급 제품이 생산되는 이치이다. 62년생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중요하다. 74년생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 행운의 숫자 : 94, 66

39년생 기막히게 좋은 운세이니 주저하지 말고 분개도로 진입토록 하라. 51년생 생색만을 내리는 이가 있다. 63년생 가장 급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 75년생 근심 없이 편히 지내겠다. 행운의 숫자 : 67, 03

40년생 진땀을 빼면서 애를 쓸 일이 보인다. 52년생 상호 교체한다면 발전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만하다. 64년생 전혀 딴 판으로 흘러가고 있는 영국이다. 76년생 가서 보면 자연히 알게 될 것이나. 행운의 숫자 : 24, 77

41년생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순조로움으로 이끌 것이다. 53년생 순응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 된다. 65년생 일시적으로 막혔다가 급히 타지리라. 77년생 어떻게 실행을 하느냐에 따라 전망치가 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3, 25

42년생 상사의 정황과 매우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될 것이나, 54년생 궤를 같이 하지 않으려는 요소가 보인다. 66년생 합리적인 방안의 수립이 시급하다. 78년생 진부함을 벗어나려는 파격이 요청된다. 행운의 숫자 : 26, 43

43년생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제일 증명해야 하는 단계로다. 55년생 원리 원칙대로 대처해야만 한다. 67년생 안전을 무시한다면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79년생 낙낙하게 마련해두는 것이 알차다. 행운의 숫자 : 50, 34

44년생 기존의 면모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실효적이나, 56년생 위험하게 공중에 매달려 있는 형상이다. 68년생 멀리 내다 볼 수 있는 시야의 확보가 절실하다. 80년생 난관과 유혹이 있더라도 이겨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17, 51

45년생 긴급한 비상 상황에 이를 수도 있는 기운이 감지된다. 57년생 대강 어렵잖아도 틀림없었다. 69년생 공중으로 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81년생 의문이 생긴다면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44, 18

46년생 탐사로는 결실이 열리기 시작하는 본원이다. 58년생 징후를 무시한다면 위태로움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알자. 70년생 기본 구조를 잘 이해한다면 차질이 없으리라. 82년생 제대로 날아올 수 있는 때이다. 행운의 숫자 : 09, 78

47년생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순조로우리라. 59년생 그림의 턱이어서 차지할 수가 없을 것이다. 71년생 원칙과 예외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꾀하는 것이 쉽다. 83년생 깊이 있게 모색해 보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79, 81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선영” ☎010-9790-8237